



태국 소수민족인 아카족의 결혼식.



중국 간수성 지역 기도 의식인 문람 행사.

다른 듯... 닮은 듯... 아시아 구석구석 생생여행

국립광주박물관서 2014년 정보문화원 7년 수집·조사 '무한수의 방' 전 알타이 암각화·불탑의 전례 양상... 공연·생활양식 등 주제별 전시

평주일보가 연재중인 '아시아 문화 원류' 시리즈 취재를 위해 지난해 캄보디아를 찾았다. 거기에서 기자는 한국의 망부석 설화를 대표하는 '박제상' 이야기와 비슷한 '르뜨짜잉과 쁘오라이'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투를 위해 떠난 르뜨짜잉을 기다리던 쁘오라이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아시아 각국 많은 이야기들은 같은 주제 속에서 나라마다 다른 버전으로 재창조돼 있다. 또 때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같은 주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1월 아시아의 대표 이야기 100개를 묶어 놓은 '백 개의 아시아'를 펴낸 소설가 김남일, 방현석씨도 "하나의 이야기가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아시아 각국에 스며 있다"며 "자기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반영돼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열개는 같다"고 말했다. 아

시아는 '문화'를 통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의미다. 문화를 통해 하나로 이어져 있는 다양한 아시아를 사진과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오는 20~28일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중앙홀에서 '무한수의 방, 무한수의 아시아'전을 연다.

내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아시아문화정보원이 2006~2013년 조사·수집을 통해 모은 결과물들을 전시한다.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2000개의 이야기, 동북아에서 동남아, 중앙아시아까지의 다양한 지역 전통음악의 생생한 연주, 힌두 대서사시가 공간과 건축 문화에 구현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사원, 메콩 강 유역 소수민족의 생활 모습과 아름다운 복식 문화, 그리고 다양한 아시아 의례와

축제의 모습 등이 선명한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으로 기록되어 생생한 아시아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

또 알타이 지역의 암각화, 베트남 북부와 중국 남부 지역의 동고(청동 북), 인도를 시원으로 동북아시아까지 전파된 불탑의 전례 양상 등은 기존에 쉽게 접하지 못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개별 주제 아래, 디지털 자료 수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 사업의 결과물을 하나의 아카이브 형식인 '방'으로 설정하여 제시한다. 관람객은 각 사업의 '방'에서 주제별로 특화된 아시아 문화에 대한 디지털 자료, 도서, 실물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경험할 수 있다.

각 '방'은 아시아 문화를 구성하는 상징, 조형, 의례, 공연, 생활양식 등의 열린 범주 속에서 개별 사업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방'들을 배치해, 이 '방'들이 모여 아시아 문화에 대한 거대한 '집'(세계)을 이루도록 구성된다. 문의 062-570-7000(국립광주박물관), 062-234-0384(문화체육관광부 전담기획과).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죽음 에피소드

총장로 기분좋은극장 '죽여주는 이야기'

죽음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코믹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가 공연된다. 6월1일 까지 총장로 기분좋은극장.

작품의 주인공은 자살 관련 사이트 운영자와 자살하기 위해 찾아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그리고 그녀가 데려온 멍청한 사내다.

줄 없는 번지점프, 앞뒤려서 딱딱 등 다양한 상품으로 죽음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이트 운영자 '안락사'는 자살업계에서 알아주는 인물. 어느날 무엇 때문에 죽으려는 지 알 수 없는 여인 '마론나'가 찾아오고, 여기에 그녀가 데려온 순진한 살인정보업자 '바로 레옹'이 얽히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연 마론나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객석의 관객이 적극적으로 작품에 참여, 함께 웃음을 만들어가는 것도 재미있다.

전석 3만원.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안 분청자기' 멋과 맛

광주롯데갤러리, 한·일 청년도예가전

광주롯데갤러리는 휴넷새 가득한 무안의 분청자를 소개한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한·일 청년도예가들의 어울림 '무안분청 전-다스름'은 분청 도요지로 명맥을 잇고 있는 무안분청의 현재를 살피고, 전통과 현대적 미감을 아우르는 청년도예가들의 '흙의 멋과 맛'을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에는 김두석, 박일정, 박정규, 임영주, 무라타 신(村田新) 등 5명의 도예가들이 초대됐다.

무엇보다도 분청자의 멋과 맛은 분장(粉粧)기법에 있다. 분과 같이 밝은 색이 나는 백토 등의 흙을 물에 개어서 분청자의 표면, 즉 회색 또는 회색색의 태토(胎土) 위에 분장한 뒤 유약을 씌워 구워내면 태토와 분장의 색이 묘한 멋을 풍긴다.

참여 작가들은 무안을 터전으로 작업하고 있는 청년도예가들이다. 특히 일본 작가 무라타 신은 일본분청의 원류가 무안분청인 것을 접하고 무안의 흙과 물, 불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무안에서 20여일간 머물면서 흙을 빚었다.

문의 062-221-18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예술제 현악 입상자

- | | | |
|--|--|---|
| <p><심사위원>
이형석(전 전남대 교수)
배상철(목포대 교수)
이승진(영남대 교수)
양승돈(원광대 교수)
임정은(창원시향부수석)</p> <p><바이올린(초등부 1.2)>
▲금상
1 김윤강(불로초2)
▲은상
13 한수민(불로초2)
▲동상
4 남 빈(조봉초2)
7 장한경(군산지곡초1)
10 김정아(광림초2)
11 이서영(광주송원초1)
<바이올린(초등부 3.4)>
▲금상
12 고병휘(광주삼육초4)
14 남하승(운리초3)
15 한수연(불로초4)
19 김정환(광림초4)
▲은상
8 이서훈(살레시오초3)
10 김현수(광주송원초4)
11 김예화(광주대성초3)
18 심아영(하백초4)
▲동상
9 고수현(불로초4)
13 김리원(광주송원초4)
16 황지영(광주송원초4)
<바이올린(초등부 5.6)>
▲최고상
3 형준서(금천초6)
▲금상
1 박 민(광주송원초6)
2 오승아(광주삼육초5)
12 이승은(전주북일초6)
▲은상
8 박세연(광주송원초5)
9 이여디디아(운암초6)
14 김가연(광주송원초6)
▲동상
4 오수연(광주송원초5)
11 김지승(광주송원초5)
13 유채린(살레시오초5)
15 김나현(순천왕지초5)
18 정지윤(광주송원초5)
<첼로(초등부 1.2)>
▲동상
1 박주연(살레시오초2)
2 안서정(수완초2)
<첼로(초등부 3.4)></p> | <p>▲동상
1 정재윤(광주상무초4)
2 조민우(광주송원초3)
5 양규민(살레시오초4)
6 진태원(운리초3)
<첼로(초등부 5.6)>
▲금상
1 김동규(살레시오초6)
▲은상
3 임희진(광주송원초6)
5 정을선(여수부영초6)
▲동상
2 김도현(광주운암초5)
<첼로(중등부)>
▲은상
2 정민호(목포유달중2)
▲동상
1 김우승(광주삼육중2)
1 김유민(운리중2)
<첼로(고등부 1.2)>
▲금상
1 강 리(광주예고2)
3 홍지유(전주예고2)
▲은상
2 김가윤(동아여고2)
4 조하승(광주예고1)
▲동상
5 이주이(동아여고2)
<첼로(고등부 3)>
▲최고상
7 설유승(광주예고3)
▲은상
6 허연희(전남예고3)
<더블베이스(중등부)>
▲동상
1 김우진(목포홍일중1)
<더블베이스(고등부)>
▲금상
2 엄찬미(전남예고3)
▲동상
1 모아현(광주예고2)
<비올라(초등부)>
▲금상
4 남윤우(광주교대부설초6)
▲동상
1 조 영(광주삼육초4)
<비올라(중등부)>
▲금상
2 김예린(신가중2)
▲동상
1 박재성(구례중2)
3 윤재원(문충중2)
5 이혜민(전남여중3)
<비올라(고등부)>
▲최고상
1 최지우(서진여고1)
▲금상</p> | <p>2 신소희(광주예고2)
▲은상
3 심선영(광주예고3)
▲동상
4 고서경(구례고3)
<바이올린(중등부 1.2)>
▲최고상
7 정현서(순천왕운중2)
▲금상
5 정산하(무등중1)
12 정서현(호남삼육중2)
▲은상
10 황시은(송광중2)
▲동상
2 박기경(첨단중1)
4 김유민(상무중2)
11 김민찬(광주중1)
13 양승운(광주송원중2)
<바이올린(중등부 3)>
▲금상
16 유 리(군산금강중3)
20 윤준은(전주예중3)
27 김나운(990613생)
▲은상
24 장하은(전주예중3)
26 윤지현(여수안산중3)
▲동상
14 송주혜(운암중3)
15 신혜비(금당중3)
17 김하은(고창여중3)
19 조세윤(운남중3)
22 이서완(여수삼일중3)
25 윤승은(광영중3)
<바이올린(고등부 1.2)>
▲금상
8 김지수(980430생)
▲은상
5 반한별(운남고2)
7 김은민(광주예고2)
▲동상
1 이수연(광주예고2)
2 김여경(981101생)
4 채지은(광주예고1)
9 양찬휘(남원고2)
10 박주연(광주예고1)
<바이올린(고등부 3)>
▲금상
15 배하은(전주예고3)
16 송지은(960728생)
17 김수빈(전주예고3)
▲은상
12 김하은(이리여고3)
14 김예훈(광주예고3)
▲동상
13 김수아(전주예고3)</p> |
|--|--|---|

점핑 찬란한 순간!

유·스퀘어문화관, 19일부터 사진 공모

유·스퀘어문화관이 19일부터 6월9일까지 3주간 '제 4 회 사진공모전' 참여자 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점핑(Jumping) 찬란한 순간!'이다. 유·스퀘어문화관은 7월5일부터 9월14일까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 '점핑 위드 러브'전을 앞두고 주제를 이 같이 정했다.

'점핑 위드 러브'전은 오드리 햅번, 마르크 샤갈 등 유명인사들의 점핑(Jumping) 사진들로 널리 알려진 필립 할스만 사진전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디지털 이미지(JPG, JPEG) 형식의 파일만 제출가능하며, 개인당 5점까지 응모가능하다.

유·스퀘어문화관은 최우수 작품 2점 등 모두 26점을 선정해 입상자들에게 문화상품권, 연극 초대권, 전시 초대권, 영화 관람권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선정된 작품은 문화관 2층 유·테라스 야외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유·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http://www.usquareculture.c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360-843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www.kjhr.com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